

파이어아벤트와 상대주의 과학관

과학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더구나 그것도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동안 과학에 대한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한 관심은 주로 과학적 탐구의 특성 때문이었다. 다른 종류의 탐구와 달리 과학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이성적 사유와 경험적 지각의 능력에만 의존해서 탐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의 결과인 과학적 지식도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지니며 비판적 통찰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과학에 대한 맹신이 새로운 암흑시대를 창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표시

하는 철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파이어아벤트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맹신이 새로운 암흑시대 창출”

파이어아벤트는 원래 비엔나 대학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전공한 과학도였다. 동시에 역사와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비트겐슈타인을 존경하여 영국으로 건너갔으나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과학의 합리성을 대변하던 포퍼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형식논리의 한계에 실감하였고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논리실증주의 과학관의 편협성에 실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



글 **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포퍼의 반증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과학과 비과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과학적 탐구의 특성으로 상징되었던 합리성은 허구일 뿐 아니라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지배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학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자는 많이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반과학주의 운동으로 확대하여 실천한다는 점에서 파이어아벤트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여러 대학에서 반과학주의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세 차례나 결혼하고 이혼하였지만 자식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주 점성술가와 상담도 하고 현대 의학보다는 심령 치료와 침술의 도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등 자신의 신념을 실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입장은 1987년에 출간된 '이성이여 안녕'에 잘 개진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 이성 중심의 서구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선전 포고이며, 과학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이라는 상식에 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학이 신화나 점성술에 비해서 결코 우월한 지식일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이 그의 대표작인 '반방법론'에 잘 개진되어 있듯이 이러한 입장은 고유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어아벤트에 의하면 과학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제시해 온 방법들이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귀납주의나 반증주의가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론은 물리학의 실제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과학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실례들을 들어 과학적 방법론을 논박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은 논리적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역사적 지식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의 고유성과 우월성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점성술이나 심령술, 혹은 침술만을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확일성의

규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론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관찰은 없다?

파이어아벤트가 제시하는 비판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견지되었던 다음 두 가지 입장을 부정하는 데 있다. 첫째, 관찰언어와 이론언어는 구별되며 관찰문장에 따라 이론의 의미가 결정된다. 과학적 진술이 경험적 사실에 기초해 있으며 이것은 권위나 감정, 전통과 사변, 편견과 습관에 기초한 진술과는 구별된다.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도 바로 관찰언어의 객관성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둘째, 서로 경합 관계에 있는 이론들의 장점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여 더 나은 이론이 선택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은 끊임없이 누적적으로 진보한다.

여기서 첫째 입장에 대해 그는 헨슨의 이른바 '이론 의존적 관찰의 테제'라는 것을 받아들여, 이론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 혹은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둘째 입장에 대해서 그는 토마스 쿤의 유명한 '패러다임 이론'에 의존한다. 과학적 이론도 새롭게 관찰된 사물이 아니라 이미 채택된 기성의 패러다임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새로운 이론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때는 파격적인 혁명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과학사의 사실을 살펴볼 때 이러한 비판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적 탐구도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론적 체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는 분명해진다. 과학자는 관찰에 임할 때 기성 이론이나 지식 체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종류의 지식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치열한 비판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이어아벤트의 상대주의는 사소한 공통점에 착안하여 본질적인 차이점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ST**